

한국 전통사상속에 나타난 환경개념에 대한 고찰

김문실* · 한영란** · 신윤희***

I. 서 론

인류가 우주에 존재한 이래 돌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 돌봄은 주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주어졌는데 19c초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물결,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가족구성원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나감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간호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이때 간호란 직업이 탄생하게 되었다(Hagell, 1989).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하에 1880년경 서구문물의 도입과 함께 영국의 선교사이며 간호사인 Heathcote가 한국을 방문한 이래 간호도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전산초, 1991). 그 과정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온 경험이나 관습의 총체는 비과학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무시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 간호교육이 한국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과 고정된 自民族中心主義的 자세나 태도를 지닌 서양인이나 서양인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므로 인해 우리 사회문화에서의 간호의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 서양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왔다(김귀분, 1991).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국상황에 맞는 간호지식체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측면에서 한국적 간

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Leininger(1978)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양문화에 의한 의학모델의 영향을 받았던 간호학에서도 비서양문화권의 대상자가 가진 문화적 의미나 생활양식, 건강신념행위에 대한 지식은 해당문화의 사고원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원형은 간호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이 갖는 신념을 인식하여야만 그들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간호이론가들은 간호현상을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metaparadigm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간호의 지식체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Haesook Suzie Kim(1983)은 간호견지에서 개념화를 위한 유형으로 대상자, 환경, 간호행위의 간호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간호이론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외에 Yura & Torres(1975)는 인간, 사회, 건강, 간호로 유형화하였으며 Newman(1983)은 간호에 중요한 요소로 간호, 대상자, 사회, 환경, 건강을 보았다(Meles, 1991).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간호영역을 수용하여 4가지 metaparadigm에 근거하여 간호 현상에서 관찰된 것을 개념화, 이론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유형학이 우리문화에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숙고해 보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metaparadigm은 인간, 환경 개념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 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서울보건전문대학 시간강사

통사상속에서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또 환경이란 개념이 분리되어서 문헌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환경개념이 한국 전통사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사상속에서 환경개념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어 환경이란 개념은 거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한된 시각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적 시각 즉 자연관(우주관)을 고찰하여 거기에서 환경개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환경이란 개념은 서양에서 중세 그리스시대 이후 주관에 대립되는 객체요, 물질적 대상으로 분리, 독립되어 기계적인 법칙에 지배되는 세계,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한 세계로 정의되었고, 또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위, 외계를 말하는 상대적 개념인(동아시아대백과사전, 1984) 서양의 개념이므로 우리의 전통문헌속에서 이 개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동양, 한국에서는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하나로 보는 통합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이흥우, 1988; 양순옥,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교육개발원, 1977; 중국철학 연구회 1992) 제한된 시각이지만 자연관(우주관)을 찾아보므로써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환경개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문화에 맞는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경, 자연관(우주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한다.
- 둘째, 한국전통사상속에서 나타난 환경개념을 무속, 불교, 유교, 도교의 자연관(우주관)에서 확인하여 서술한다.
- 셋째, 한국전통사상속에서 나타난 환경개념의 간호학적 적용을 모색한다.

II. 본 론

1. 개념 정의

「환경이란 생물을 둘러싸는 외위, 일상용어로는 가정 환경이 좋다 나쁘다든가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라는 것처럼 인간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일 경우에는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지만 생물일반에 대해서는 이들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 환경이 문제가 된다. 즉, 생물을 둘러싸는 외위가 환경이다.」라고 동아시아대백과사전(1984)에서 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Heasook Suzie Kim(1983)은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세계를 일컫는 환경은 근접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공백락내에서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상징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양의 문헌에서는 어디에서도 환경이란 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환경에 대한 정의에서의 표현처럼 외위라는 생각자체가 동양적 사고(한국적 사고를 포함하여)에는 없기 때문이다.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 사람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 안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에 사람은 자기와 더불어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며, 사람은 그 이해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인생관과 자연관(우주관)이 형성되는 것이다(배종호, 1989).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그 사고자체가 환경이란 말의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자연 또는 우주라고 흔히 표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연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양인의 자연관-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 한국인도 이 범주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은 서양의 자연관과는 달리 자연을 인간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자연을 인간생활의 모범이나 정형으로 파악하는 '자연중심의 자연관'이었다. 즉 자연을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인간행위의 전 분야, 도덕과 정치에 이르는 모든 인간적 삶을 생성, 발전시키는 생명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77),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1990)에 의하면, 「동양에서의 자연은 객체나 대상 혹은 기계적인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철학은 노장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4세기에 <장자 莊子>를 주석한 광상은 自然과 他然을 구분하여 道는 자연이 지 타연이 될 수 없음을 말한 바 있다. 타연이란 크리스티교에서처럼 유일신 사상을 믿는 종교에서 절대타자에 의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즉, 절대타자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었으므로 타자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으니 타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냥 있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말은 살아있는 그 무엇을 형용하는 말처럼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기계론적인 자연관은 신, 인간, 자연의 삼자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신없는 자연, 인간부재의 자연이라는 관념을 배태하고 말았지만, 고대 동양의 자연관에서 보면 자연가운데에 신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 인간, 자연의 삼자가 내면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자연

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유교대사전(1990)에서도 「자연은 작위(作爲)함이 없는 도(道)의 작용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본래는 ‘저절로 그러하다’는 의미였지만 도의 작용이 내재적 자기원인으로 말리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자연현상 및 자연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상식적 차원에서의 자연, 즉 의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자연, 혹은 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매우 드물다. <노자 老子>에서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한 것이 자연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의미 부여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철학대사전(1991)에 의하면 우주란 「시간, 공간상으로 제한되지 않는 전(全) 자연을 말하며, 여기에는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질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우주라는 말은 장자의 저서인 <莊子>에서 처음 보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연물의 시간·공간적으로 무한함을 가리켜 우주라 하였다. 코스모스는 그리스어의 Kos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질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변하여 완전한 질서를 가진 세계라는 뜻으로도 통용된다. 다른 한편 universe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의 총체를 말하거나 더 좁게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교대사전(1990)에 의하면, 「우주는 공간적 세계와 시간적 세계를 총칭하는 말로서 우(宇)는 공간적 세계를 가리키고, 주(宙)는 시간적 세계를 가리킨다. 동양의 일원론적 사유구조 속에서는 ‘우’와 ‘주’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특히 방이지(方以智)는 「물리소지(物理小識)」에서 “우 속에 주가 있고 주 속에 우가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자연계의 이법적(理法的) 성질을 자신의 본성 속에 반영하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자연’이란, 글자 그대로 ‘그 스스로 그러함’을 뜻하며 이밖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위가 가해지지 않는 경우, 도를 형용하는 경우, 사리의 당연함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는 주로 우주, 천지, 만물, 환경을 가리킨다. 우주라는 말은 ‘上下四方의 공간’ (宇)과 ‘고금왕래(古今往來)의 시간’ (宙)을 합성한 단어이다. 지극히 작은 공간(至小無內)에서 지극히 큰데(至大無外)까지, 시작이 없는 데(無始之始)에서 끝이 없는데(無終之終)까지 이르는 무한한

시·공을 우주라고 하며, 자연은 이 우주를 의미하기도 한다(곽신환, 1990).

간호현상을 설명하는데 흔히 인용되는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4가지 metaparadigm중 하나인 환경개념은 생물을 둘러싸고 외위, 또는 주제와 반대되는 객체, 즉 상대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환경개념은 동양적 사고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자연 또는 우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문헌에 따라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2. 전통사상속에서의 자연관(우주관)

우리나라 전통사상속의 자연관(우주관)에서 위의 개념정의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서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분리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따르며 특히 그 각각이 독립되어서 유지, 계승되기보다는 혼합되는 우리 문화의 다종교적 특성(한국 정신문화원, 1990)을 고려할때 어려움이 있지만 전통사상중 중요한 맥락인 무속, 불교, 유교, 도교를 중심으로 본체론적인 측면(Ontological view)의 자연관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문헌고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 속

전통사회에 있어서 한국인의 삶이 대체로 유교, 불교,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짜임새 있는 사상체계만으로는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반서민의 생활은 무속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즉 무속신앙은 대(代) 종교들이 전래될 때에는 언제나 그 수용기반이 되어 이들 외래종교를 이 땅에 토착화시켜 왔다. 그러나 무속의 종교사상은 고등종교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무속신앙에서 교리적 이론체계를 기대할 수 없지만 무속신앙에는 그 나름의 사상적 표현이 있으며 사상적 표현의 내용은 우주, 신령, 인간의 세 실체의 관계가 그 초점이 되고 있는데(유승국, 1985), 여기서는 본고의 관심이 되는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속의 모든 사상적 표현의 밑바닥에는 원시적인 애니미즘(Animism)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 애니미즘은 사람은 물론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정령(anima)에 힘입어 존재한다고 믿는 정령신앙(精靈信仰)이다. 애

니미즘에 의하면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정령은 인간과 자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유승국, 1985). 무속의 종교사상은 이러한 원초적인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무속 신앙에 의하면 우주는 천상계(天上界), 지상계(地上界), 지하계(地下界)의 삼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김태근, 1982; 유승국, 1985; 정무용, 1979). 이들 3계의 우주층에는 각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천상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똑같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천상에는 천신을 비롯한 일신(日神), 월신(月神), 성신(星神)과 그 시종신(侍從神)들이 살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며 지상에는 인간과 금수(禽獸), 그리고 산신을 비롯한 일반 자연신이 살고, 지하에는 인간의 사령(死靈)과 그 사령을 지배하는 명부신(冥府神)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이처럼 우주를 수직으로 삼분하는 우주관보다 일보 전진한 것으로 우주를 평면으로 동서부, 서북방, 극북의 三區로 나눈 수평설이 있다(정무용, 1979).

보편적인 무속의 우주관과 한국 무속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현재 전해오고 있는 무가(巫歌), 의례(儀禮), 신화(神話)의 표현에 한정하여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가로 우주관을 추측해 볼 때 이 우주는 선신(善神)들이 거처하는 天上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승과 죽은 혼령이 가는 中陰界가 있다. '이처럼 신계(神界), 인간계(人間界)의 수직적 분포가 있는가 하면 수평적 분포도 있으나, 인간계와 망령(亡靈)의 住處는 수평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가(巫歌) 異界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례와 신화로 우주관을 추측해 볼 때 여기서도 저승계는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延線上의 어디로 상정하고 있다. 즉 무가나 무속 신화 및 무의(巫儀)에서 지하라는 망령의 住處는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인간이 사는 이승과 中陰界, 그리고 善神이 살고 있는 천상의 三界로 우주는 구조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다시말해 앞에서의 무속에서의 보편적인 우주관과는 달리 천상, 지상, 지하의 수직적 異界觀도 아니고 평면으로 나눈 수평적 異界觀도 아닌 양자를 혼합한 좀더 포괄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무용, 1979).

또한 우리 신화에는 지하계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구체적 자료가 전승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가 암흑한 곳, 암울한 의미로 생각되지 않고 어떤 전기(轉機)를 이룩하게 해 주는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아울러 태초의 혼돈된 상태, 즉 카오스를 의

미하기도 한다. 카오스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은 재생, 혹은 부활을 위한 예비적 상황이다. 다시말해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서 전신(轉身)을 준비하는 죽음이 지하로의 입굴(入窟)이고 이 과정의 극복만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김열규, 1975). 즉 어둠의 혼돈상태 '카오스'에서 하늘과 땅이 생기는 코스모스,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천지가 개벽되면서 지상에는 인간을 비롯한 온갖 만물이 생겨나 신이 다스리게 된다. 즉 가시적 존재는 '코스모스'의 근원을 불가시적 존재 '카오스'로 보고 '카오스'를 존재의 무한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속에서 보는 우주관은 우주 존재 근원인 '카오스'에서 스스로 열려 공간과 시간이 생겨 우주 질서가 생긴 후에 지상에 만물이 생겨나고 이 만물의 질서를 잡는 것이 신이라 믿는다. 이렇게 우주의 근원을 '카오스'로 보기 때문에 무속의 우주관은 존재를 우주 밖의 '카오스'쪽에서 보는 arche-pattern(原型)의 입체적 존재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 원질(原質)은 이미 있었던 불멸의 영원한 것이며 우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체계 위에 있는 가시적 순간 존재인 俗인 공간으로 보고 있다(김태근, 1982).

지금까지 고찰한 것을 정리하면, 무속에는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깔려있으며 이러한 원초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우주는 천상, 지상, 지하의 수직적 異界觀이나 혹은 방위에 따른 수평적 異界觀의 三界로 나누고 있으며, 現傳하는 한국 무속의 우주를 무가(巫歌)와 무속신화(巫俗神話) 및 의례(儀禮)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상, 지상, 중음계의 三界로 구조되어 있는 수직·수평의 異界觀이 보다 포괄적으로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하계는 지옥관념의 암울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기(傳機)를 이룩하게 해 주는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체계 위에 있는 가시적 순간 존재인 俗의 공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불 교

자연이란 남에게 시킴을 받지 않고 스스로됨을 말하는 것으로 無因自然, 業道自然, 願力自然, 無爲自然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無因自然이란 物, 心 모든 법은 因이 없이 나는 것이니 가시는 卍족하며 새들의 색깔은 제각기 다른 것들이 자연이라는 것이다. 業道自然이란 善, 惡의 業을 지으면 苦, 樂의 과보가 따르는 것을 말

하며, 願力自然이란 타력교에서 중생이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도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기만 하면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거하여 자연히 정도에 왕생한다는 것이며, 無爲自然이란 저절로 있어 생멸변화가 없는 진여법성의 이치라는 것이다(불교사전, 1977). 이렇듯 자연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므로 불교의 중심되는 학설을 고찰해 보므로써 불교의 자연관, 우주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교철학에서 우주관은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여 우주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다.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이해에 핵심이 되는 연기론(박광서, 1989)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緣起란 불교사전(1977)에 의하면 인연생기(因緣生氣)의 뜻으로 緣이 되어서 결과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으로, 어떤 근본으로부터 일체만상이 벌어진 상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계통이다. 모든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러한 원인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며 어떤 사물, 인간도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들이나 인간들과의 상호작용, 관계로서만이 존재하고 인식된다고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자체로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는 주체가 없다고 하며 이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삼라만상에 적용된다(諸法無我)(박광서, 1989; 불교신문사편, 1988).

연기설의 자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박광서, 1989) 첫째,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얽혀있어서 그중 어느하나가 움직여도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이 우주안의 모든 것을 한 덩어리,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小宇宙라고 하며 한 티끌도 전 우주를 포함한다고 한다(一微塵中含十方). 둘째, 어떤 존재에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있다면 우주전체와 우주법칙 그 자체만이 절대적이며 삼라만상의 모든 개체들은 다 연관성이 있고 각각 대등한 존재로서 그 어떤 사물이나 인격체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신, 부처도 절대자일 수 없다. 셋째, 시, 공은 고정된 척도가 아니라 쉼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우주에 대해서는 시작도 종말도 없다고 한다(無始無終). 넷째,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의 본질을 자유라고 본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탐욕, 집착, 무지로 부터의 해탈 즉 완전한 자유를 얻는데 있고 전 우주가 한 생명체라는 확신이 곧 깨달음이며 온 중생이 추구해야 할 共同善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기설은 일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상대적 존재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느 대립개념에도 집착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놓아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소해 버리는 일원적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즉 간략히 요약하자면 자연, 인간문제를 전체적, 조화적 개념을 토대로 해소해 버리는 일원론적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불교의 연기론에 따른 자연, 우주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불교가 우리의 사상적 내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고익진(1988)에 의하면 한국 불교는 사상변천에 따라 삼국,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크게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구분에 따른 사상을 다 검토할 수 없으므로 한국 불교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사상(統和思想), 일명 화쟁사상(和諍思想)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상은 신라의 원광이나 자장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신라시대 원효는 무애자재(無碍自在)의 진리를 깨침에 있어 開合, 宗要의 화쟁논리를 가르쳤는데 이는 고려, 조선조로 맥을 이어 대각, 의천에 이르러 선교의 대립을 지양하는 교관겸수(教觀兼修)로, 그리고 보조, 지눌로 하여금 正(禪), 慧(敬) 結社의 글을 적게 하였다. 이 이래 한국불교는 教, 觀禪의 구분없이 병수하여 원통선불(圓頓成佛)의 길을 닦는 화합을 특색으로 하였다(불교신문사, 1988). 원효는 그 어느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거나 버리지 않고 언제나 분석, 비판하고 긍정과 부정의 두가지 논리를 융합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가치를 한 체계속에 하나로 묶어 담았는데 그 기본 구조를 和諍이라고 불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화쟁사상은 인간세상의 화와 쟁을 인정한데서 비롯되는데, 만유는 一로서 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표상으로 보면 천자만별이 諍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和, 諍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지양하면 통섭된 和가 된다는 것이다. 즉 和, 諍은 대립되는 것이지만 和의 극치에 달하면 諍이 和에 동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쌍방이 상호협력하는 작용을 행하게 되어 대 생명이 성육되고 우주는 무궁무진하게 운행되어 만유는 統和되고 運動된다고 하는 것이다(조명기, 1993).

이 통화사상을 살펴보면 어느나라의 불교보다도 더욱 통일되고 조화로운 화합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효는 근본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중생의 구원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기억할때 불교의 연기설에 따른 우주관, 자연관의 개념에 크게 벗어난 사상을 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려된다.

요약하면, 연기설에 의한 자연관이 한국의 화쟁사상에서 잘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화쟁사상은 인간세상의 화와 쟁을 인정한데서 비롯되며, 만유는 一로서 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표상으로 보면 천차만별이 靜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和, 靜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지양하면 통섭된 화가 된다는 것이다. 즉 화, 쟁은 대립되는 것이지만 화의 극치에 달하면 쟁이 화에 동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쌍방이 상호협력하는 작용을 행하게 되어 대 생명이 성육되고 우주는 무궁무진하게 운행되어 만유는 統和되고 運動된다고 하는 것이다(조명기, 1993). 자연, 인간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서 전체적, 조화적 개념을 토대로 하여 자연과 인간이 동화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불교신문사, 1988).

(3) 유 교

도가의 道는 無極이 大禮라면 유가의 道는 太極이 그 本禮이다. 유가의 태극은 도가의 무극과 같이 우주만물을 추상(抽象)한 개념이다. 모든 個物위에 초월해 있는 본체가 아니라 모든 個物에 속한 공통된 존재이다(곽신희, 1990).

유교에서의 자연관은 太極을 本禮로 하는 음양오행설이 주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태극이란 말은 유교의 5경중 우주 만물의 변화와 이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인 주역-B.C 700년 경의 작품으로 <易經>이라고도 부르며 <周易>이란 周나라 시대의 易이란 뜻으로 중국 고대인의 자연에 대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의 繫辭傳(繫辭傳)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陰陽變易하는 가운데 태극이 있어 이것이 兩儀(陰儀와 陽儀)를 生(化生)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氣一元論의 것으로 풀이하면, 태극이란 것은 우주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즉 一氣(本體氣)가 陰陽二氣(現家氣)로 분화한다는 것이다(한국주역학회, 1992).

진나라 이전의 유학(先秦儒學)은 공자, 맹자, 순자 등과 같은 사상가들의 활동으로 체계화된 학문인바, 주로 인간관계에 착안하여 向外的인 윤리, 도덕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송나라 시대에는 주돈이 소용, 장재, 정호, 정이 등과 주희(주자)등이 向內的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 우주·자연의 이치(理) 및 기운(氣)등의 문제와 인간내부의 心性등을 탐구하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 유학의 주류를 이루는 성리학은 후자를 가리킨다.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다 하여 性理學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이천(程伊川)과 주자(朱子)의 활동을 대표하여 程朱學 혹은 朱子學이라 부르기도 한다(황준연, 1992).

程伊川 이전에는 자연을 해명함에 있어 주로 氣一元論이었다. 朱熹철학은 程伊川의 이른바 理와 氣로써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설을 해설하는 것이다. 이에 주자는 태극을 理로, 그리고 음양을 氣로 봄으로써 그의 二氣二元論을 체계화한다. 理란 것은 形而上之道(무형의 원리)로서 만물을 화생하는 근본원리(법칙)요, 기란 것은 形而下之器(유형의 재료)로서 物을 화생하는 資具이다. 이로써 人과 物(만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 理를 받은 뒤에 性(人과 物의 본성)이 있고, 반드시 이 氣를 받은 뒤에 形체(人이면 心身共히, 物이면 物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그는 理와 氣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理와 氣는 불리부잡(不離不雜)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배중호, 1989). 결론적으로 성리학은 우주론적으로 理와 氣, 그리고 心과 性의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중국의 철학사상중 하나의 독자적이고도 사변적인 사상체계를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한국인의 문화형성에 있어서 매우 깊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쳐왔다. 유교는 최소한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이전의 시기에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윤사순, 1984). 그러므로 유교가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은 전통사회는 물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것이며, 한국인에게 있어서 유교는 동양 문화 안에서의 한국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척되었는데, 이것이 곧 한국성리학의 발전이요, 동양문화에 대한 공헌이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섭의 관계로 미루어 당시 한국이 성리학의 학풍을 받아들여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일은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본고의 관심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우리나라 유학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어 있는 4단 7정, 理氣에 관한 논쟁「사칠논변(四七論辨)」을 벌인 학자요, 유교에서의 우주발생론을 가장 많이 언급한 학자인 퇴계는 理와 氣로서 우주론을 어떻게 전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주자설에 따라 理와 氣의 결시이물(決是二物)임과 그 불가분개(不可分開)임을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주역」의 복괘(卜卦)를 所依로 우주론을 전개하는데 그의 聖學十道에서도 「태극도설」을 第一圖로 삼고 있다. 「태극도설」은 無極而太極이란 존재를 설정하고, 태극의 동정에 의하여 음양으로 분화하고,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하는데 無極之眞(理)과 二五之精(氣)이 포함하여 응취함으로써 만물이 화생된다는 것

로 우주생성론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태극이 동하여서는 양을 낳고(動而生陽), 정하여서는 음을 낳는다(精而生陰)고 한다. 즉 태극의 동정에 의하여 음양이 생긴다는 것이다(철학·종교연구실, 1990).

여기서 태극 및 태극과 우주만물과의 관계에 대한 퇴계의 설명에 주목하게 된다. 하나의 理가 모든 사물에 고르게 부여되어 있다면, 어느 물체이든지 천원적으로 자재하는 성을 가지고 있다. 氣는 비록 사물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理는 氣에 구애되어 끝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는다고 한다. 우주전체의 견지에서 말하는 理가 바로 태극임은 물론이고 퇴계와 같은 性即理의 전제를 인정할 때, 이것이 또한 사물전체의 견지에서 말하는 '本然의 性'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극은 주희가 말하듯 만물의 理의 총화로서 우주의 근원적 理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극을 모든 사물이 다 제각기 가지고 있다(萬物各有一太極)"는 것이다(윤사순, 1986). 즉 퇴계는 우주조화를 理動과 氣動의 양면으로 보고 理動而氣生이란 것은 우주의 생성론적 측면을 말한 것이고, 氣動而理顯이란 것은 우주의 운행론적 측면을 말한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모두 천지조화의 측면을 논한 것으로서 퇴계의 우주론은 運動과 氣動 즉 이기호동설(理氣互動說)이라 하겠다(철학종교연구실, 1989).

간단히 요약하면, 유교에서의 자연관(우주관)은 太極을 本體로 하여 음양오행설과 理와 氣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유교에서의 자연관(우주관)도 우리나라 유교의 주류를 이루는 성리학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한층 더 발전하였음을 우주발생론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리학자의 대표격인 퇴계의 우주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4) 도 교

도교는 도가사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래 彼岸의 관념이 이외로 회박하고 현세의 길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며 4세기 이후에야 비로써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모방하여 교리를 체계화하고 정비하였다. 즉 도교는 역사적으로 볼때 고대의 민간신앙과 신선설을 그 중심으로 도가, 여위, 음양, 오행, 참위, 의술, 점성등의 범술과 무술적인 신앙을 보태고 그것을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본받아 몽둥그런 종교로 불로장생과 현세의 길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梁나라 劉勰은 장혹론(藏惑論)에서 도가의 三品을 논

했는데 上品은 노자에 표준을 둔 것으로 노장사상, 철학 및 고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가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中品은 신선의 방술로 장생불사하는 보건위생적 영역에서 활용되었고, 下品은 장릉의 교로서 사머니즘적 요소가 강하고 일반의 무지한 대중의 토속신앙이 되었는데 그 중 中, 下品을 도교라고 일컬으며(한국교육개발원, 1977), 도교정신이 체계화 된 것은 갈홍(葛洪)의 포박자, 위백양의 참동계(參同契)에서 라고 할 수 있으므로(송항용, 1991) 중심사상이 되는 노장사상과 포박자, 참동계에서 나타난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老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자연을 가장 중요한 최고 개념으로 생각하면서도 위대한 것으로 道, 하늘, 땅, 사람의 4가지만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연이란 개념은 사실상 무목적 무의식적으로 일체사물을 생성할 수 있는 道의 기능을 형용한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道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혼돈속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으니 天地보다 먼저 생긴듯하다.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한 그의 형체도 볼 수 없도다. 獨自存在하되 영원히 쇠갈(衰竭)하지 않으며 순환운동(循環運行)하되 영원히 지치지 않으니 천지의 근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억지로 그것을 道라고 문자화한다"고 하였다.

老子의 우주발생론에 의하면 만물이 네 단계로 형성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첫째, 道에 의하여 구성되며 도에 의거하여 비로써 생겨날 수 있다. 둘째, 만물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얻게 되며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일정한 형체를 거쳐서 비로써 어떤 사물이 될 수 있다. 넷째, 그들 주위의 영향을 받아 生長, 成熟한다(이강수, 1984). 즉 자연이란 宇宙간의 사물, 사건들 전체가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며 균형을 이루며 조화해 가면서 보여주는 상태나 동작을 형용한 것으로 스스로 그러한 또는 자연스러운이란 뜻을 갖는다(이강수, 1984). 마지막으로 노자 사상은 無爲自然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無爲와 自然은 表裏관계에 있으며 일부터 作爲하지 않고 저절로 흐르는 물세(物勢)에 준거(準據)하는 것을 뜻한다. 즉 무위자연이란 사물들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不爲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物勢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준거하는 것을 뜻한다(이강수, 1984).

다음으로 藏子의 자연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그는 자연을 상위개념이 없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개념으로 전 자연계의 일체사물을 포괄하니 지구도 태양계도 우주도 모두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축을 이루는 개념은 天, 道, 自然이며 천지는 광대무궁하며 온갖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만물의 父母라고 하였으며 우주전체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擴大미비의 天地를 성립, 유지, 전개시키는 것을 道라고 하였으며 도가 천지의 존재가능한 근거라고 하였다. '至道の道'의 속성은 많으나 언어로서 한정할 수 없는 불가언전(不可言詮), 物이 아닌 非物, 도는 無이지만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無有, 通하지 않는 곳이 없어 천지 만물들 사이로 자유로이 왕래하는 大通, 온 덩어리 즉 '一'을 의미하는 整體性, 自存의 성격을 나타내는 무대(無待)등을 대표적 속성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道는 無爲하며 自然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강수, 1984).

도교의 철학적 기반을 확고하게 한 참동계와 포박자에서 우주의 생성에 대한 문제, 道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한다. 도교에서 우주는 無로부터 비롯하여 妙一, 그리고 三元, 마지막으로 만물이 생겨 난다고 설명한다. 이때 無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의 元氣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삼원의 단계에서 천보군, 영보군, 신보군등이 화생하였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곳이 옥청, 상청, 태청의 삼청군이며 삼보군은 자기 이름은 다르지만 원래는 원초적인 하늘의 존경받는 초자연적인 존재(元始天尊)이며 이를 최고신, 옥황상제라고 부른다. 이 최고신이 세계를 開創하여 세계의 국토가 열리고 인간이 번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황준연, 1992).

요약하면 노자, 장자의 자연은 宇宙간의 사물, 사건들 전체가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며 균형을 이루며 조화해 가면서 보여주는 상태나 동작을 형용한 것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살려두는 다양성, 시간성, 변화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렴하여 조화의 질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름아닌 무위자연론이다(安恒龍, 1991). 또한 도덕경 28장을 보면 대립의 논리를 지양하고 반대같이 보이는 것들의 相補性내지 조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대립적인 것의 일치개념으로 매우 가치있고 중요한 개념이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태도가 아니라 양면을 동시에 보고 함께 포용하는 통전적, 비이분법적, 주객초월의 의식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오강남, 1993).

한국 도교의 전래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단 도교를 중국으로부터 수용했다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신선사상의 원류를 우리나라 자체에서 찾는 견해로서(황준연, 1992), 도교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토착적인 고유문화 현상으로서 산악, 신앙, 신선술 및 그것과 연관된 각종의 방술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도교가 한국땅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이며 불교 및 유교의 전래와 거의 같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황준연, 1992) 그러한 한국 도교의 특징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구려 말기 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채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과의적 도교의 특성이 다. 둘째는 사회에서 은둔하여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道流들에 의해 도교가 전승되어 자연히 내, 외단의 수련 도교가 융성해지는 특성이다. 이것은 지식인에게 인생에 있어 운치나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동시에 좋은 건강관리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도교의 한국전래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교는 노장사상을 형식적으로 포괄하기는 하나 사상적 흐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한국교육개발원, 1977). 한국도교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신선이 되기를 동경하는 신선사상이 농후하게 나타나며 원래 도교가 그랬던 것처럼 노장사상등에서 보여지는 자연관이나 우주관과 같은 철학적 사고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 현실과 관련되어 인간의 현세적 추구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도교에 대한 문헌연구가 미비하여 한국의 자연관에 대한 자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연을 강조하고 있는 노장사상속에서 나타난 자연관이 한국 전통사상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보성, 조화성, 다양성, 대립적인 것의 일치개념이 한국인의 자연관에 관한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한국전통사상속에 나타난 자연관(우주관)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고찰해 본 결과 우주만물의 생성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 본체론적 시각, 즉 자연관이 원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한가지 근거에서 생성,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순리대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게 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한국적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자연을 인간생활의 모범이나 정형으로 파악하는 자연중심의 자연관이였다. 우주만물속에서 인간은 天을 절대지고의 가치체계로 보고 사람은 이 天의 道에 순응함으로써 天人合一의 이상을 진리와 가치의 최고원리로 삼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효의 화쟁사상, 퇴계의 理氣互動說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느나라보다도 더욱 통일되고 조화로운 화합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수렴하여 조화의 질서체계의 형성을 중시하고 대립의 논리를 지양하고 상보성(相補性) 내지 조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대립적인 것의 일치개념으로 매우

가치있고 중요한 개념이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태도가 아니며 '이것도 저것도'라는 양면을 동시에 보고 함께 포용하는 통전적, 비이분법적, 주재초월의 의식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강남순, 1993). 이는 자연세계와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는 서구사상과는 판이한 것이다.

〈표 1〉 한국 전통사상속에 나타난 자연관

종 교	자 연 관 (우주관)
무 속	무속에서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깔려있으며 이러한 원초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우주는 천상, 지상, 지하의 수직 三界나 혹은 방위에 따라 三界로 나누고 있으며, 現傳하는 한국 무속의 우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상, 지상, 중음계의 三界로 구조되어 있다고 믿어 수직·수평의 異界觀이 포괄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또한 지하계는 암울한 의미가 아닌 어떤 轉機를 위한 과정이며, 우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체계 위에 있는 가시적순간 존재인 俗의 공간으로 보고있다.
불 교	화쟁사상은 인간세상의 화와 쟁을 인정한데서 비롯되며, 만유는 一로서 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표상으로 보면 천차만별이 靜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和, 靜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지양하면 통섭된 화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쌍방이 상호협력하는 작용을 행하게 되어 대 생명이 성육되고 우주는 무궁무진하게 운행되어 만유는 統和되고 運動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 교	태극의 동정에 의하여 음양으로 분화하고,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하는데 無極之眞(理)과 二五之精(氣)이 묘합하여 응취함으로써 만물이 화생된다는 것으로 우주생성론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태극이 동하여서는 양을 낳고(動而生陽), 정하여서는 음을 낳는다(精而生陰)고 한다.
도 교	만물의 형성단계는 道에 의하여 구성되며 도에 의거하여 비로서 생겨날 수 있으며, 만물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얻게 되어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형태를 가져서 비로서 어떤 사물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주위의 영향을 받아 成長, 成熟한다. 자연이란 宇宙간의 사물, 사자들 전체가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며 균형을 이루며 조화해 가면서 보여주는 상태나 동작을 행용한 것이다. 즉 도는 천지의 존재가능 근거이며 무위하며 자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전통사상 속에 나타난 환경개념의 간호학적 적용

우리는 한국 전통사상속에 나타난 환경개념의 간호학적 적용을 논의함에 앞서, 현재까지 간호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적 변화가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한국적 자연관을 비교하므로써 우리의 전통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이 갖는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간호현상을 설명하는데 인용되는 많은 개념들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4가지 metaparadigm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많은 간호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이론가들은 환경을 개인의 직접적인 주변 또는 주위 상황으로 고려하거나 개인이 반응해야될 자극의 원천으로 환경을 고려하거나 개인이 조절하고 동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개념은 엄격하고 정적인 개념이므로 실질적으로 간호 패러다임을 주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이미지

와 관계를 조장하지도 않는다. 간호실무자들은 간호중재를 위한 초점으로 개인을 고려하고 환경은 간호의 관심 주변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간호실무자들 자신이나 대상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경험의 환경, 사회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자각하고 환경을 재개념화 하려는 노력에서 간호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로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키고, 인간-사회적 관계로서 환경을 의식하며, 매일의 삶으로서 환경을 의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환경이란 개념이 간호학적 사고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로 옮겨질 필요가 있으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와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므로서 건강과 질병을 유발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개인의 개별화된 관심을 넘어서서 설명하기 위해 주변세계로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Chopporian, 1986)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에서 환경을 재개념화하려는 노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먼저 Meles(1991)의

분류에 의한 간호이론가들의 환경에 대한 견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구이론가(need theorists)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well-being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환경의 요소들을 보았다. Abdallah는 대상자의 요구, 간호문제, 환자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을 보았으며, Henderson은 기본적인 간호는 환경적 요소들을 조절하므로써 환자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Orem은 생존을 위해 self-care agent가 조절하는 개인 외부에 있는 외적 요소를 환경으로 보았다.

2) 상호작용 이론가(interaction theorists)

간호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환경에서의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King은 건강유지는 내·외적환경의 조화와 균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Paterson & Zderad는 타인에 게서와 같은 객관적 세계의 견지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즉각적인 간호상황의 맥락내에서 환경을 고려하였다.

3) 결과 이론가(outcome theorists)

균형과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Jonson은 환경으로 부터 오는 요구, 자극을 지적하며 그것이 불균형 또는 양육의 subsystem response를 야기한다고 하였고 Levine에 의하면 간호목적은 환경의 변화를 통한 에너지 보존과 통합으로 개인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Rogers는 개인에게 외부적인 모든 것의 patterned wholeness를 환경으로 정의하였고 인간과 환경간에 물질, 에너지의 끊임없는 상호교환을 고려하였으며, Roy는 모든 내·외적 조건, circumstances를 환경이라고 정의하면서 surrounding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집단의 행동,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4) Meles의 구분에서 제외된 간호이론가

Parse(1981)의 Man-Living-health이론에서 그는 환경의 개념을 대상자와 함께 공동 창조하고 대상자가 관계된 환경의 양상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인간과 환경을 구분하지만 서로가 함께 공동창조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적이고 진보된 사상을 가진 간호이론가

들은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Ecofeminist theory, Critical social nursing, Macro-level and quantum caring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need theorists, interaction theorists들은 환경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 중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outcome theorists와 Parse등은 환경과의 조화, 균형, 공동창조를 주장하고 좀더 진보된 간호이론가들은 통합적이고 전우주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양에서도 인간중심적 사고에 따른 문명발달로 자연 뿐 아니라 인간에 큰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어 전 우주적 차원에서 자연을 고려하는 통합적 견지를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Newman(1991)등을 비롯한 일부 간호학자들은 기존의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4가지 metaparadigm에 의한 구분이 간호의 초점을 좁히기 시작하였으므로 간호를 구성하는 현상들을 묘사하기 위해 Particulate-deterministic perspective, interactive-integrative perspective, Unitary-transformative perspective의 세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 중 Unitary-transformative perspective에 의하면 한 현상은 a lager self-organizing field에 내재한 a unitary self-organizing field로 보여지고 이것은 더 큰 전체와의 상호작용과 양상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통사상속에서 자연법칙이 인간법칙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공동창조하며 상보적 원리에 있다는 것과 잘 부합한다.

이와 같이 간호이론에서 환경을 포함한 패러다임은 전환되고 있는데 그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한국 전통사상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원론적이고 조화를 강조하며 전체적인 관심으로 인간과 환경을 파악하려는 경향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한국적 자연관은 서양에서 논의되었던 패러다임의 변화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Unitary-transformative perspective와 유사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근시안적이고 좁은 의미로 환경을 취급하여 대상자의 간호에 주체가 아닌 객체로, 주변으로 사소하게 다루고 활용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과 항상 공존하는 통합된 일치 개념으로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 론

간호이론가들은 간호현상을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metaparadigm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간호의 지식체 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수용하여 4가지 metaparadigm에 근거하여 간호현상에서 관찰된 것을 개념화, 이론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이러한 유형학이 우리문화에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속고해 보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4가지 metaparadigm중의 하나인 환경개념이 우리의 전통사상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우리의 전통문헌속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환경개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하나로 보는 통합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적 시각 즉 자연관(우주관)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환경개념을 우리의 사고와 맞도록 재고해 보려는 노력으로 환경, 자연관(우주관)의 개념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무속, 불교, 유교, 도교속에 나타난 자연관(우주관)의 고찰을 통한 환경개념의 간호학적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맞는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전통사상속에 나타난 환경개념을 무속, 불교, 유교, 도교의 자연관(우주관)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속의 우주관에는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이 깔려있으며 이러한 원초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천상, 지상, 중음계의 수직三界나 방위에 따른三界로 구조되어 있다고 믿어 수직·수평의 異界觀이 보다 포괄적으로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순환체계 위에 있는 가시적 순간 존재인 俗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자연관은 화쟁사상에서 나타나는데 화쟁사상은 인간세상의 화와 쟁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유는 一로서 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표상으로 보면 천차만별이 靜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和, 靜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지양하면 통섭된 화가 되며 결국 쌍방이 상호협력하는 작용을 행하게 되어 대생명이 성육되고 우주는 무공무진하게 운행되어 만유는 統和되고 運動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태극의 동정에 의하여 음양으로 분화하고,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하는데 無極之眞(理)과 二五之精(氣)이 포함하여 응취함으로써 만물이 화생된

다는 것으로 우주생성론을 말한다.

도교의 자연관을 보면 만물의 형성단계는 道에 의하여 구성되며 도에 의거하여 비로서 생겨날 수 있으며, 만물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얻게 되어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형태를 가져서 비로서 어떤 사물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주위의 영향을 받아 成長, 成熟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사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즉 자연을 인간생활의 모범이나 정형으로 파악하는 자연중심의 자연관이였다. 天을 절대지고의 가치체계로 보고 사람은 수위 이 天의 道에 순응함으로써 天人合一의 이상을 진리와 가치의 최고원리로 삼았으며, 모든 것을 수렴하여 조화의 질서체계의 형성을 중시하고 대립의 논리를 지양하고 相補性내지 조화성을 강조하여 통전적, 비이분법적, 주객초월의 의식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자연관에 대한 견해는 현재 서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즉 Unitary-transformative perspective와 유사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근시안적이고 좁은 의미로 환경을 취급하여 대상자의 간호에 주체가 아닌 객체로, 주변으로 사소하게 다루고 활용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과 항상 공존하는 통합된 일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불어 이 고찰은 본 연구팀의 한국전통사상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며 앞으로 한국적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한국문화 및 전통사상과 간호의 metaparadigm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하여질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순(1993). 동양의 자연관과 여성신학: 전통적 세계관에 대한 여성신학적 비판과 대안, 한국여성학자협의회
- 고익진(1988). 한국의 불교사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 박신환(1990). 주역의 이해-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서광사
- 교수불자연학회편저(1989). 박광서: 불교의 현대적 조명-연기론과 현대물리학, 민족사
- 김귀분(1991).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한 민속과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21(3), 396-417.
 김열규(1975).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일조각
 김태곤(1982).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동아세계대백과사전(1984). 동아출판사
 배중호(1989).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續), 원광대학
 교 출판국
 불교신문사편(1988). 불교의 이해: 철학적 종교로서의
 불교, 문맥사
 서정기(1990). 민중유교사상, 도서출판 조선문화
 세계평화교수협의회(1987). 東洋思想과 韓國의 비전,
 도서출판 一畵
 세계철학대사전(1980). 교육출판공사
 송항용(1991). 동양인의 철학적 사고와 그 삶의 세계,
 명문당
 신정균(1983). 불교와 의학, 현대불교신서 48
 오강남(1993). 한국여성신학: 노장사상의 자연관-여
 성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자 협의회
 운허용(1977).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유교사전편찬위원회(1990). 유교대사전, 박영사
 유승국(1985). 철학사상의 제문제(IV),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윤사순(1984).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윤사순(1986). 退溪哲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윤사순(1986).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이강수(1984). 도가사상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이원설(1988). 세계관과 문화, 한남대학교 출판부
 전산초(1991). 간호학의 정립과 한국전통문화IV: 서양
 간호유입에 의한 간호 문화, 이대간호대학 학술심
 포지움, 이대간호대학 연구소
 전시자의(1991). 성인간호학, 현문사
 정무용(1979). 한국설화에 나타난 고대인의 우주관 고
 찰: 무속사상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
 어국문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조병희의 33인(1993). 한국종교의 심층적 연구: 한국
 불교의 전통적 교학사상, 우석
 중국철학연구회(1992). 동양의 자연과 종교의 이해
 철학사상대계 I, II (1991). 철학대사전, 신태양사

철학·종교 연구실(1990). 전통과 사상(IV),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최병현의 33인(1993). 한국종교의 심층적 연구: 한국
 불교의 전래, 우석
 한국교육개발원(1977). 한국인의 인간관, 삼화서적주
 식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주역학회(1992). 周易의 現代의 照明, 범양사
 황준연(1992). 한국 사상의 이해, 박영사
 A. I. Meles(1991). Theoretical nursing—develop-
 ment & Progress, J. B. Lippincott Company.
 D. Kleffel, Rethinking the environment as a domain
 of nursing knowledg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4(1), pp 40-51
 HaeSook Suzie Kim(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M.A. Newman, A. M. Sime, and S. A. Corcoran
 Perry(1991). The focus of the discipline of nurs-
 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4(1), 1-6
 M. M. Leininger(1978).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John Wiley & Sones, pp 57-58, 87-88.
 M. M. Leininger(1988). Leininger's theory of nurs-
 ing: 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arterly, Vol. 1, No 4, 152-160
 M. Patricia(1986). New approaches to theory
 development, pp 39-54,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 Abstract -

Review of Environment in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

Kim, Moon Sil* · Han, Young Ran** · Shin, Yun Hee***

This paper reviewed the concept of the environ

* Professor, Ewha Womans Univ. College of Nursing

** Part time lecturer, Ewha Womans Univ. College of Nursing

*** Part time lecturer, Seoul Public Health Junior College

ment in Korean traditional thought according to 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The differences in the views of the environment between Korean traditional thought and Western thought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ont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environment, one of the four metaparadigm (human, environment, health, nursing) as it is expressed in Korean traditional though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concept of environment separated out in the traditional thought pattern. Instead, environment concepts are represented in the natural views and universal views.

Even though the four traditional thought patterns

(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represent some difference in their view of nature, the combination of natural and human, harmony, anti-dichotomy and so forth are emphasized in common in four thought patterns. Korean traditional though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meaning than the unitary-transformative perspective discussed in modern Western thought patterns.

Environment has been dealt with in narrow view until now. Now we avoid this narrow view and must regard environment as an integrated concept with person.

Through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a contribution will be mad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knowledge suitable to Korean culture.